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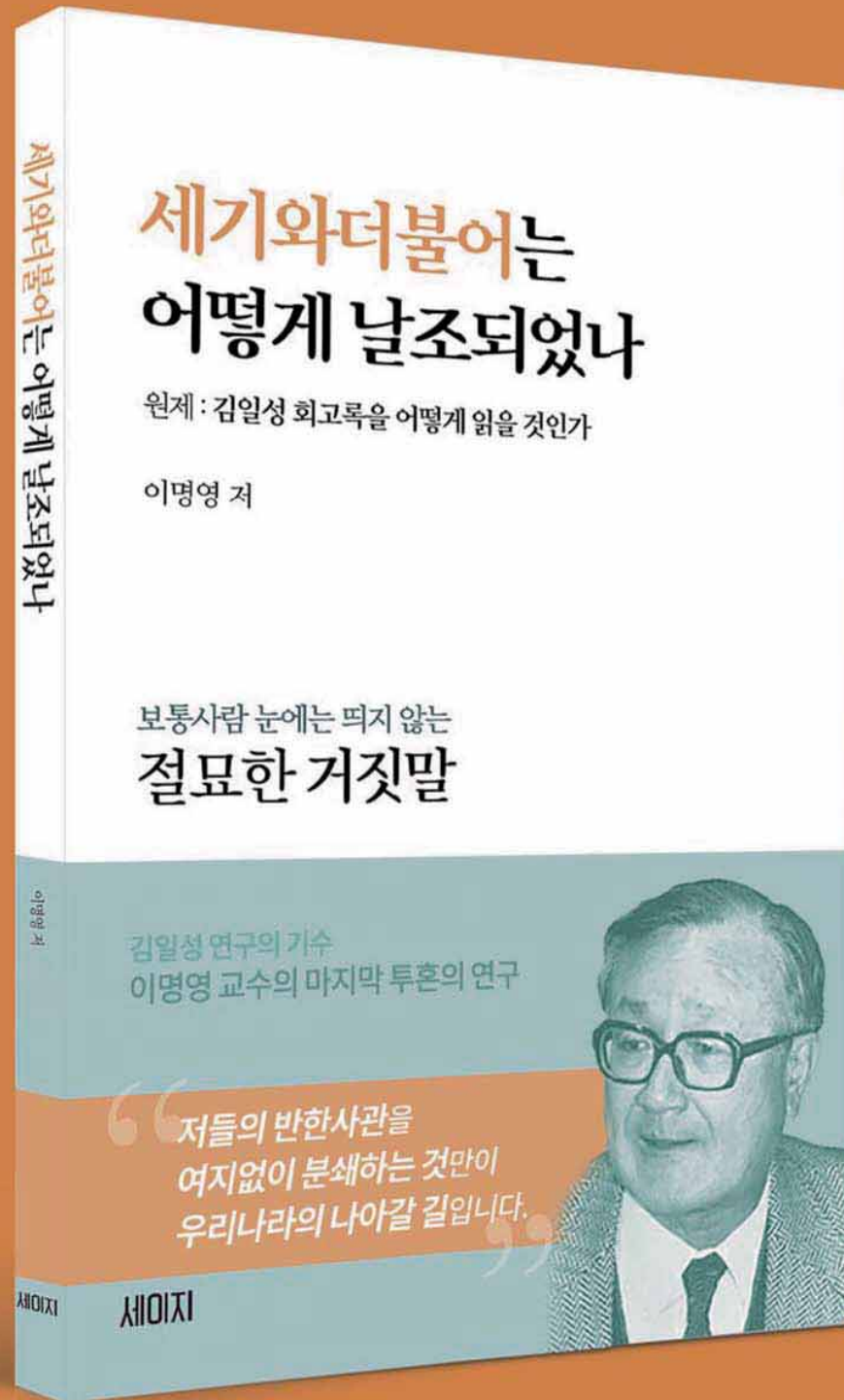
박병태, 인진섭, 권경선 판사께 묻습니다.

# 「세기와 더불어」가 합법이면 김일성 우상숭배 합법됩니다.

거리마다 김일성 동상 세우고 집집마다 초상화 달면 막을 법은 있습니까?

## 김일성 회고록에 대한 독보적인 팩트체크 분석서 출간

위조지폐를 식별하려면 진짜 화폐를 알아야 하듯이  
날조된 역사를 식별하려면 진짜 역사를 알아야 합니다.  
김일성의 책이 아니라 이 책을 읽어야 안 속습니다.



### 합법화 절대 반대사유

- ✔ 6.25 남침 책임 은폐
- ✔ 주민 폭압 체제 유지 수단
- ✔ 세습 공산전체주의 정당화
- ✔ 독립운동사 왜곡
- ✔ 독립운동가 모독
- ✔ 반인도범죄 은폐
- ✔ 기아 제노사이드 은폐

### 종북세력의 합법화 노림수

- ✔ 국가보안법 7조 무력화
- ✔ 종북 이력 말소
- ✔ 종북 활동 자금 마련 및 합법적 대북 송금

“전국민이 읽어야 할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 이승만 모독

“이승만이 모스크바에 가서 거액의 재정원조를 요구했다가 목살당하자 반소련미 일변도로 되었다는 어처구니없는 거짓말도 들어 있다. 이승만은 일본의 동북아 세력팽창을 저지키 위한 방도 모색을 위해 1933년 7월 19일에 모스크바에 갔다가 그날로 퇴거명령을 받고 다음 날에 떠나는 일도 있다. 이유는 비자가 잘못 발급되었다는 것이었다. 국제당에 재정원조 운운은 당치도 않은 이야기이다.” (p. 79)

#### 김구 모독

“평양에 갔을 때 김구는 김일성의 인격에 감복하여 조선을 바로잡을 영웅은 김일성 밖에 없으므로 자기도 김일성을 따르겠다고 말했다고 날조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김구가 임시정부의 인장을 김일성에게 정중히 올렸는데 김일성은 민중의 신임만 있으면 되었지 인장은 가지고 가라고 사양했다고까지 날조를 감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때 김구는 김일성에게 일단 서울에 갔다가 다시 평양으로 올테니 그땐 여생을 보낼 과수원이나 하나 하게 해달라는 부탁까지 했다는 것이다.” (p. 227)

#### 반한세력 분쇄해야

“김일성 회고록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대한 1, 2, 3 논문은 이미 발표되었고 4 논문의 교정을 마쳤습니다. 교정은 벌써 마쳤는데 왜냐고 전답이 늦었습니다. 그러니까 회고록 전8권 중 제6권까지 완벽한 분석을 마친 것입니다. 제 7·8권이 남았으나 그것을 마저 할 시간이 나에게 허락되지 않는군요. 제 논문 1, 2, 3, 4를 합본해서 단행본으로 출판하여 저들의 반한사관을 여지 없이 분쇄하는 것만이 우리나라의 나아갈 길입니다.” (p. 19)

#### 친북세력 득세경고

“남한에 김일성 김정일 부자 정권을 동경하는 세력이 엄존한다는 것은 사실이다. 대북 추종주의자 혹은 주사파라 일컫는 이 사람들은 세련된 전술로 요소요소에 다 박혀있다. 언필칭 민족과 민주와 통일을 부르짖는 이 사람들은 개미 발자국 소리도 농칠세라 곤두세운 감각으로 ‘남조선혁명’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 그들은 북한정권과 혈연적 혹은 사상적 혹은 조직적 유대때문에 인생노선을 바꿀수 없는 사람들이다.” (p. 30)

#### 김정일 출생지 날조

“1983년 3월에 나온 『백과전서』까지는 백두산 밀영이 꿈의 골에 있었다고 했으니 그 이후부터 1991년까지 사이의 어느 시점에서 사령부 밀영의 위치가 국외에서 국내로 변경된 것이다. 소백수 골의 밀영의 위치는 김 주석 자신이 특정한 것이라 한다. 그리하여 거기에다 귀틀집을 짓게 하고 거기가 조선혁명의 사령부요 김정일의 생가요 하는 말을 하기 시작한 것이다. 시점이 언제인가 알아봤더니 김정일이 45세 되던 1987년 2월이었다. 아들이 어디서 났는지를 제일 잘 알 사람이 아무 거리낌 없이 온 세계를 향해 새 빨간 거짓말을 마구 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유일 최고의 사기극이라 아니할 수 없겠다.” (p. 144)



왼쪽) 북한이 주장하는 김정일 생가터. 오른쪽) 실제 생가인 러시아 연해주 라즈돌리노에 88번지.

#### 구매 및 캠페인 참여 문의

**구매문의**  
010-5693-8219  
010-4040-1799  
전국 서점에서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캠페인문의**  
(사)법치와자유민주주의연대(NPK)  
02-733-1204

**각종정보**  
유튜브 VON뉴스  
npknet.org

**소송참여**  
도태우 변호사(대리인)  
010-8860-6907